

기획1·제자훈련 단기선교, 선교적 제자도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단기선교로 제자도를 실천하고, 복음의 파문을 일으키라

이권희 목사_신일교회



지역 교회가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전 성도에게 선교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지역 교회의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먼저 전 성도로 하여금 '가든지 보내든지'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든 저기서든' 선교적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돼 있다. 그러므로 구약은 선교적인 책이다. 신약도 물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럿인데, 그중에 '에클레시아'가 대표적이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교전 1:2)이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흩어진 백성' 즉 '디아스포라'다(벧전 1:1~2).

교회의 사명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증거 등이다. 여기서 증거는 동일 문화권 내의 전도(evangelism)와 타 문화권 전도(cross-cultural evangelism)인 선교를 포함한다.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선교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존 스코그런드(John Skoglund)가 말한 대로 선교는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표지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표지(mark)이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 성도의 선교 의식화라고 생각한다.

제자훈련 단기선교, 선교 의식화 통로

지역 교회가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전 성도에게 선교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충동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선교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칫하면 선교의 맛만 보여 주는 기형적인 선교 사역에 그칠 수 있다.

지역 교회의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먼저 전 성도로 하여금 '가든지 보내든지'(Go or Send! Go and Send!)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든 저기서든'(Here or There! Here and There!) 선교적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단기선교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명령은 제자도의 목표이자 표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사실 제자도의 목표는 ‘가서 제자 삼는 것’이다.

지역 교회는 그 자체로 상당한 선교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적 자원(선교 일꾼), 영적 자원(선교 기도), 그리고 물질 자원(선교 재정) 등이다. 이런 자원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선교 사역에 동원될 때, 지역 교회는 보다 강력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나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가 단기선교에 참석하는 것은 인적 자원, 영적 자원, 그리고 물질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영적 시너지가 강한 제자훈련 단기선교의 유익

제자훈련 기간에 떠나는 단기선교에는 일반적인 선교 여행보다 더 강력한 영적 시너지가 있다. 제자훈련은 책상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 있는 훈련이다. 선교를 하면서 찾아오는 시험이나 영적 싸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

1. 제자도를 실천하고 경험하며 영적 시야의 확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제자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단기선교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훈련 시간에 귀로만 듣던 말씀이 내가 다니는 교회와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거대한 구원 계획을 체험하며, 영적 시야가 완전히 넓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선교는 그동안 이론으로 훈련된 말씀과 기도를 경험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실과 소그룹에서 배웠던 말씀, 기도훈련, 전도폭발훈련 등의 이론을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살아 있는 기도’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2. 훈련생 간 공동체성의 완성

단기선교는 제자훈련의 연장이다. 결코 별개의 이벤트가 아니라

훈련의 일환이다. 그런 만큼 훈련생 내에서도 리더십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개인행동을 절대 삼가야 하고, 사소한 결정도 팀과 공유해야 안전과 은혜를 지킬 수 있다. 또한 며칠 동안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면서 서로의 연합도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진짜 ‘예수 성품’을 훈련받는다. 이는 제자훈련 동기들과 평생을 함께할 영적 동역자 관계로 끈끈해지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2024년 제자훈련을 마친 6명의 형제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우리 팀은 후쿠오카에서 사역하는 CCC 김남인 선교사와 소통하면서 기도로 준비했다. 우리 팀의 일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후쿠오카 고락구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나가사키를 방문해서 일본의 순교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후쿠오카 고락구교회는 담임목사인 양위석 목사가 현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비록 1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자체적으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소그룹을 통해 전도하는 건강한 교회였다.

특히 후쿠오카 시내 한복판에서 ‘노방전도’를 한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전도지를 잘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대부분 받았다. 내가 10분 정도 복음 설교를 하는 동안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가사키에서는 순교지를 방문했는데, 가슴 뭉클한 시간을 보냈다. 비록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도전의 시간이었다. 다녀와서 제자훈련 수료식을 통해 영상을 보여 주면서 사역 보고회를 가졌다. 정말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올해에는 성도 15명이 고락구교회와 연계해서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3.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일상에서 선교사로 사는 삶

선교지를 떠나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녀온 후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어떻게 이어 갈지 나누고, 현재와 선교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마무리 작업이 필수적이다. 단기선교를 다녀오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선교사가 된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일상에서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올해 3월에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사실 나는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인도라는 나라에 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선교위원장인 장로님이 인도에 학교를 세웠는데,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으니 내가 꼭 갔으



파문이란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 사방으로 동그랗게 퍼져 나가는 물결의 모양'을 뜻한다. 복음의 파문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친구, 이웃 그리고 열방까지 나아간다. 제자훈련생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면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인도 단기선교팀'을 구성해서 가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모인 13명이 함께 인도에 가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

인도 텔리 한복판의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등 놀라운 현장을 통해 나의 선입견이 바뀌었다. 단기선교를 계기로 인도가 친밀하게 느껴졌고, 인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단기선교를 다녀오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임을 깨닫게 된다. 선교지에서 가졌던 복음의 열정을 일상으로 가져와, 매일의 삶을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영적 성숙을 이뤄 간다.

복음의 파문을 일으키라

복음은 파문이 일어나야 한다. 파문이란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 사방으로 동그랗게 퍼져 나가는 물결의 모양'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파문을 낳는다. 그 파문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친구, 이웃 그리고 열방까지 나아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3~4절에서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

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자훈련생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복음은 파문 같이 퍼져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복음의 파문이 땅끝까지 퍼져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나의 게으름과 태만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돼야 한다. 제자훈련을 받는 목적은 단지 훈련을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제자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다. 그 세상은 가까이 나의 가정으로부터 이웃, 사회와 민족 그리고 열방까지이다. 제자훈련을 통해 경험하는 단기선교는 말 그대로 짧은 일회성 선교지만, 제자도를 실천하고 경험하며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됨을 명심하자. **d**



이권희 목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탈봇신학교(Th.M.)와 풀러신학교(D.Min.)를 졸업했다. 현재 신일교회 담임목사이자, 전국 CAL-NET 이사, WEC선교회 이사, OM선교회 이사로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 『목사님, 제자훈련이 정말 행복해요』가 있다.